

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6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7월 1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새 214)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8 번 시편 (Psalm) 127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서 (Hebrews) 10:26-37** 이선호 집사

설 교 Sermon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김일선 목사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92 장 “나의 영원하신 기압” (새 43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려 할 때가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교만하게 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과 교만과 거짓과 위선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오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3-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개역개정 **히10:34**)
 “You sympathized with those in prison and joyfully accepted the confiscation of your property, because you knew that you yourselves had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 (NIV **Hebrews10:3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12 (주일)	7/13 (월)	7/14 (화)	7/15 (수)	7/16 (목)	7/17 (금)	7/18 (토)
	수18,19	수20,21	수22	수23	수24	삿1	삿2
본문	시149,150	행1	행2	행3	행4	행5	행6
	렘9	렘10	렘11	렘12	렘13	렘14	렘15
	마23	마24	마25	마26	마27	마28	막1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7/15수 오후7:30)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민 19:17-22)
토요 새벽기도회 (7/18토 오전6:30)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마 69-13)

지난 주일(7/5)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19-25)

기독교 신앙에는 (크게)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구절은 우리 신앙의 동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Come, let us worship (와서, 경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주는데, **1)첫째는 믿음의 영역**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히10:22), **2)둘째는 소망의 영역**으로서, 우리는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며 (히10:23), (마지막) **3)셋째는 사랑의 영역**으로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10:24-25).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서 모암으로 뒤바뀌고, 우리 신앙의 장이 ‘일상에서 교회’로 변경되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매일에서 주일’로만 제한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영락없이 왜곡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의 균형을 늘 유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매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메/모